



남도한정식엔 산·강·바다가 담겼네

광주디자인센터 가상식당 ‘달·해’ 상설전시 음식·식기류·인테리어 등 스토리텔링 접목

속절없이 눈물이 흘러도, 골목에 퍼진 저녁밥 익는 냄새면 충분했다. 포기하지 않기에 충분한 마지막 힘을 주는 것, 그게 음식이다. 늦은 밤 피붙이의 밥 한 그릇이 식지 않도록 데우고 또 데우며 차마 끄지 못한 집안의 불빛, 그게 마음 속 음식이다.

광주디자인센터가 남도 한정식에 대해 명쾌한 정의를 내렸다. 디자인센터는 지난 1월부터 디자인·요리전문가 등과 함께 남도한정식의 새로운 디자인 안을 만들었다.

낯선디자인그룹 구진욱 대표, 디자인바이 최태욱 대표, DKM 신진희 대표 등 국내 디자인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했다. 또 광주시지정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이수자인 이은경(51·광주대 호텔조리학과 겸임교수)씨가 남도 의식에 대한 전문지식을 자문했다. 미약하게나마 기자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보탤다.

이들은 5개월여의 토론과 현장답사 등을 통해 남도 한정식의 스토리텔링을 완성했고 ‘가상의 식당’을 만들어 내부 인테리어, 탁자와 식기 등도 새로 디자인했다.

시작은 이랬다. 인간에게 음식은 어떤 의미이며, 남도 밥상의 매력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통해 음식과 관련된 ‘식당의 모든 것’을 그렸다.

한정식의 개념은 모호했다. 궁중, 구한말 들어오기 시작한 요리 집, 기생 집에서 생겨났다는 등 다양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위해 제철에 나는 최고의 음식재료로 정성을 다해 차린 밥상이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생각이 같았다.

특히 남도한정식은 산과 강, 바다가 끼고 있는 전라도의 지리적 여건 덕분에 철마다 재료가 풍부하다는 게 특징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메뉴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제철음식의 개념이 강하고, 가장 싱싱한 재료를 쓴다는 것도 맛의 비결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남도 한정식은 해와 달이 키우고 산과 바다, 강이 만든 음식이라는 스토리텔링이 모습을 갖추었다. 또 이 모든 자연의 요소를 담고 있는 ‘일월오봉도’를 ‘디자인의 씨앗’으로 정했다. 왕의 밥상을 차리는 최고의 정성이 담겼다는 의미도 곁들여졌다.

‘일월오봉도’에서 출발한 논의는 해와 달의 의미와 맛의 최고 경지에 다다랐다는 뜻이 담긴 ‘달·해’라는 가상의 식당 이름도 만들 수 있었다.

남도한정식 ‘달·해’는 넉넉한 장문으로 펼쳐진 자연을 만끽하며 느긋하게 남도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내부가 꾸며졌다. 메뉴도 틀을 잡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의 의미를 담아 입매, 결오리, 한 끼, 입가심이라는 코스가 정해졌다.

음식을 더욱 맛깔스럽게 해주는 탁자와 식기도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탁자는 음식 수가 많아 다소 여수선해 보일 수 있는 한정식의 상차림을 정갈하게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식기는 김치 국물이 흘러도 자연스럽게 색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 됐다.

이 밖에 젊은 세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고, 메뉴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센터는 최근 이 모든 것을 담은 남도한정식 ‘달·해’를 디자인센터 본관에서 상설전시하고 있다.

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전시를 통해 남도 한정식이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실제 식당업자들이 이 디자인 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가 가상의 남도 한정식당을 만들어 선보인 내부 디자인 모습.



김치 등 국물이 있는 음식을 담아도 지지분하지 않도록 디자인한 접시.



광주 출신 故 배동신 ‘복숭아’ 2억에 판매

상반기 최고 거래액은 김환기 작품

광주 출신 고(故) 배동신 화백의 정물화 ‘복숭아’가 글로벌 온라인 판매 사이트 ‘이베이(www.ebay.com)’를 통해 18만 달러(약 2억 원)에 판매됐다고 예술통신이 6일 밝혔다.

또 올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 거래에서 작품 거래액이 가장 많았던 작가는 신안 출신 김환기였다.

지난해 10월에는 배 화백의 대표작 중 하나인 ‘누드 수채화’가 이베이의 온라인 경매를 통해 36만 달러(약 4억 원)에 판매된 바 있다. 이번 정물화는 경매가 아닌 일반 판매로 팔려나갔다.

1920년 광주에서 태어난 배 화백은 17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미술을 공부하고 돌아와 1945년 귀국,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해왔다.

또한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와 미술경제전문지 ‘아트프라이스’가 6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결산’에 따르면 김환기의 작품이 총 40점 출품된 가운데 34점이 낙찰돼 낙



배동신 작 ‘복숭아’

찰총액 62억3560만원(낙찰률 85%)을 기록했다.

김환기에 이어 박서보의 낙찰총액이 48억5629만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8배로 불면서 이우환(3위, 47억8339만원)을 제치고 2위로 급부상했다.

신안 안좌도(옛 기좌도)에서 태어난 김 화백은 이후 일본, 서울 등지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고향을 왕래하며 안좌도의 자연을 화폭에 녹여냈다. /김경인기자 kki@연합뉴스

국윤미술관 내달 14일까지 ‘공존의 시간’ 기획전

김주연·박성휘·이상필 등 참여

국윤미술관이 광주U대회에 맞춰 오는 8월 14일까지 테마기획전 ‘공존의 시간’을 개최한다.

김주연·박성휘·박화자·이상필·이시운 작가가 참여해 자신만의 개성과 특색을 담아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한다.

김주연씨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물의 생명성을 상징적으로 작품화한 ‘식물의 사생활’ 시리즈를 선보이고, 박화자씨 투박한 붓자국으로 자연의 살아있는 생명을 표현한 ‘자연과 만남’을 새롭게 발표한다.

또 피노키오를 패러디해 현대인의 모습과 대중 심리를 표현하는 이상필씨, 바리데기 신화를 통해 한국 여성 속에 스며있는 신화의 원형을 표현하는 박성휘씨, 소중한 사람과의 소통방식에 대한 색채 에너지를 표현하는 이시운씨가 공존



이시운 작 ‘color diary’

이라는 테마로 전시에 함께한다. 문의 062-232-733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내일 ‘인도의 불교미술’ 특강

이주형 서울대 교수 초청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준)은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이주형(사진) 교수를 초청해 ‘인도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특별전 ‘아시아의 불교미술-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8월2일)까지와 연계해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의 미술 대부분은 힌두교, 불교 등에 기반한 종교미술로, 강연에서는 불교가 탄생한 기원전 5세기 이후 불교미술이 형성되는 과정



및 지역적 발전 양상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 교수는 서울대와 버클리대학 미술사학과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지난 1992년부터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미술사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간다라미술’(사계절출판사), ‘인도의 불교미술’(사회평론),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사회평론) 등이 있다. 문의 062-570-705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2년만의 **빅세일** 7월 25일까지

이태리가구 SALE

www.hong79.com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홍스케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